

### 대선 관세 가를 일주일...4대 변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과 부정부패추방시민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초동 영도빌딩 앞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자녀 위장취업과 관련,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11일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모임 '명박사랑' 회원들이 서울 삼성동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해 이명박 후보와의 화합을 촉구하고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7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번 주는 대선 정국의 흐름을 가늠 짓는 변수들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대형 변수들의 실재가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에 형성된 대선 구도가 다음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그대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 대선 흐름을 좌우할 4가지 변수와 대선 정국을 조망해 본다.

## 1 범여 후보단일화 '대역전' 서곡될까

대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3일께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여권 대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오종일 대표,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박상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회담을 갖고 합당에 따른

막바지 조율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명, 지분 등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범여권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대통합신당과 민주당간 합당과 후보단일화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도 압력으로 작용, 2단계 후보단일화 및 통합도 조

간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범여권은 이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총동이 격화되면서 보수 진영이 틀로 나뉘는 반면, 범여권 진영은 총결집하면서 막판 대역전극 연출이 가능하

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선 화두가 경제에서 부패와 이념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범여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김경준씨 귀국 'BBK 뇌관' 터질까

이르면 14일, 늦어도 17일께 귀국할 예정인 BBK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씨의 입은 대선 정국의 뇌관이다.

법무부는 김경준씨를 비공개로 귀국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귀국 과정에서 김씨의 발언 등이 흘러나오면 대선 정국을 통째로 뒤흔들 전망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지 사흘만인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6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 귀국과 관련, 각 후보 진영은 각종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의 향배가 가다지아질 전망이다. 이회창 후보는 출마 명분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한 데다 범여권 주자들도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는 점에서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 주자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3 누구 손 들어줄까 '朴心의 향배' 관심

이명박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권과 당권 분리 방침을 밝히며 박근혜 전 대표에 지원을 호소했다. 당장 이번 주에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집권을 명분으로 이명박 후보 지원 의사를 보인다면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로 주목했던 '이명박 대세론'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거나 모호한 의사를 밝힌다면 BB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씨 귀국과 맞물려 이회창 후보 대안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선 정

국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충분한 전리품을 챙겼다는 점에서 조만간 한나라당 후보로의 정권 교체 명분을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경준씨 귀국을 계기로 박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이르면 12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4 이회창 지지율 30% 진입엔 대혼전

출마 선언과 함께 20% 초반을 기록했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변수다. 김경준씨 귀국 여파로 이 후보가 이번 주 내에 20% 후반대나 30%대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대선 구도는 더욱 혼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자체적인 경

쟁력 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와 김경준씨 검찰 수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박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거나 검찰의 김

경준씨 수사 결과가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후보의 대선 완주 여부. 정치권에서는 김경준씨 귀국 및 검찰 수사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20% 초반이나 그 이하로 급락한다면 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일 경우, 이회창 후보는 막판까지 대선을 완주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수엑스포 유치 전방위 노력 "운명의 날 보름 남았다"

### 주불대사관 BIE 회원국 맨투맨 마크

"오는 26일 오후 7시 (한국시각 27일 새벽 3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 111개 회원국 대표의 투표로 결정되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순간에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지 속이 타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조일환)은 막바지 표 다지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수박람회 유치활동의 '베이스 캠프' 격인 주불 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아예 출퇴근을 잊고 유치 활동에 매달려 있다. 조일환 대사는 회원국들의 동향을 시시각각 점검하면서 지지표 이탈 방지와 아직 지지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미정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막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조 대사는 "모든 외교관들이 파리에 대표를 두고 있는 세계박람회기구(BIE)의 82개 회원국 대표를 맨투맨 식으로 마크하고 있다"면서 "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 외교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미 문화외교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호응을 얻었다. 아프리카 BIE 대표단을 초청해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연 것을 비롯해 동구지역과 중남미 대표단을 위한 '보드카의 밤', '라틴의 밤' 행사도 선보였다. 17~18일에도 루아르 지역에서 BIE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씨드 시승회 행사를 연다.

## 지구촌 놀랄 '비장의 프레젠테이션' 준비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심을 여수로 모을 비장의 프레젠테이션(PT)이 준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오는 26일 BIE 총회에서 선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설에 이어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인물은 김재철 위원장과 정몽규 여수세계엑스포 명예 유치위원장이자,

유치위는 현재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최종자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식을 기획했던 인물로 당시 정적 속에 한 어린이가 굴렁쇠를 굴리는 퍼포먼스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도 111개 BIE 회원국의 표심을 여수로 몰아줄 수 있는 놀라운 퍼포먼스가 나올 지 주목된다.

이번 총회에 참석할 우리나라 대표단도 윤곽이 짜여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에는 정부 인사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조종표 외교교통상부 제1차관 등이 포함되며 김재철 엑스포 유치위원장과 정몽규 명예유치위원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대표들이 포함된다.

## 박준영 전남지사 막판 동남아 표단속

박준영 전남지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을 앞두고 막바지 유치활동을 위해 12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박 지사는 단장으로 하는 이번 동남아 유치사절단은 오는 17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2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여수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양국 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현재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과 같은 해양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소개하고 해양국가인 두 나라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유치사절단은 이번 순방과 함께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최종 표심 이탈 방지를 물론 2차 투표에 대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대기업까지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박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234-3222

신도시 분양  
279,000  
440,000  
598,000  
848,000

신도시 분양  
355,000  
609,000  
721,000

**무안 → 하문(廈門) 전세기 취항**

899,000  
938,000  
929,000  
939,000  
759,000  
929,000